

통일 칼럼

북한의 비밀병기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나서고 있다.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단독 방문했고 차관 격인 외무성 부상은 7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도 했다.

그리고 평양에선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준비도 한창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비밀병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전송될 기념행사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내렸다. 뒤따라 나온 여성은 김정은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최섉희 북한 외무상이다.

3주 만에 최 외무상은 다시 베이징을 찾았다. 2022년 취임한 최섉희가 외무상 자격으로 중국을 단독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중 기간 리창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북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타진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방북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한중,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비해 입장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파견됐다. 북한이 유엔총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7년 만이다.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북한 외무성 부상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거리는 것이라는 마한가 지라는 것이다.

북미 대화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다른 국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평양의 메시지를 들고 와 미국과 불밀 접촉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코로나 시기에도 뉴욕 유엔대표부에 상주하고 있던 북한 외교사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분간 활동할 철수했었다.

그런데 다시 왔다고 하는 건 뉴욕 채널이 대화 창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열병식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평양 미립비행장에선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 수백 대 등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앞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비밀병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열병식에서 공개될 지도 관심사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최근 개발되고 있다고 밝힌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20형'이다.

중국의 열병식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끈 건 세계 최초의 전 지구적 ICBM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거리가 2만km가 넘는 DF-5C형이리든가 새로운 미니트맨(미국ICBM) 후계라고 할 수 있는 DF-6I 같은 핵미사일이다.

북한도 화성-20형을 준비하고 있다.

탐제된 엔진도 이미 실험했다. 엔진은 추력이 200톤포스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의 3배에 달한다.

중국이 열병식 때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나, 최근 북한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고성능 무인기 체계, 또는 초대형 무인잠수정도 비밀병기의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사설

늘어나는 고립 은둔 청년

사회적 교류 없이 외부와 단절돼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힘들 때 기별 사탕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한다.

고립·은둔 청년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을 직접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웃이나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다. 고립·은둔형 위기 가구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수가 5만4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고립·은둔 생활은 20대 초중반부터 시작됐는데, 고립은 평균 7.4년, 은둔은 평균 4.2년 이어졌다.

이들은 왜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까. 취업이나

진학에 실패하면서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정신적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대인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을 얻기도 했다. 이들은 혼자 쉬는 것을 선호한다. 일상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는 '집 안 활동'으로 채운다.

대부분 청년들은 이런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청년은 자기 계발을 위해 공부하거나 이력서를 내거나,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사회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힘들고 지쳐서', '처음 고립·은둔을 하게 된 이유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다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기도 한다. 고립을 방지하면 더 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

신입생 충원난을 겪으며 한계에 직면한 부실 대학을 겨냥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울렸다. 교직원 월급 체불 등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에 정부가 폐교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학교 청산 뒤 남은 재산의 15%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그간 부실 대학들은 폐교 후 남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간판만 유지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대학가에선 이런 대학을 고등교육 경쟁력을 잃어먹는 '좀비 대학'이라고 불려왔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사립대의 재정을 진단하고 '경영위기 대학'을 속이낸다. 이후 구조개선을 거쳤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대학에 한해 교육부 장관이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해산·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사립대 설립자에게 청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의 15%인 해산정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폐교 절차에 참여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사립대는 면직되는 직원에게는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학업중단 위로금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산정리금을 청산하기 위한 재산 청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다리에 누운 '반트럼프' 나체 자전거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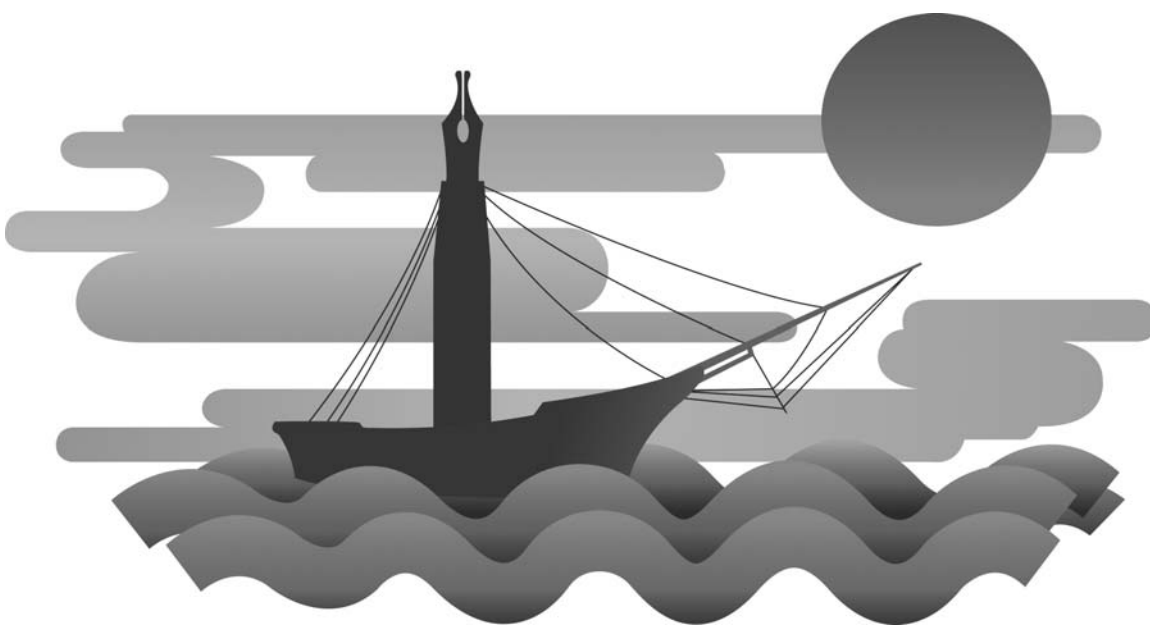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번사이드 브리지에서 '나체 자전거 시위'(Naked Bike Ride)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시도에 항의하며 도로에 누워 시위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합의에 따라 인질 전원 교환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인질 광장'에서 한 여성이 가자지구에서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며 국기와 함께 앉아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사진 28구 포함)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의 교환이 이날 이루어진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